

오차노미즈여자대학교에서의 반학기

건국대학교

김도경

K2590062

오차대에 오기 전날까지 외국에서의 생활이라는 점에 설렘보다는 긴장으로 가득한 날들이었습니다. 내 일본어 실력에 맞는 선택일까, 수업을 잘 들을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습니다.

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이 곳에서의 시간은 아쉬울 정도로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. 수업의 경우 각자 레벨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과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들은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. 처음에는 서투른 일본어로 혹시라도 문법이나 단어 등이 틀린 채 말을 할까 두려웠습니다.

두려워만 하기에는 계속해서 일본어를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틀려도 제대로 된 표현을 가르쳐 주실 교수님이 계셨고, 다른 학생들과 대화하며 배운 새로운 단어나 표현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며 일본어에 대한 긴장감과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. 유학생 수업을 담당하신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.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.

유학생 수업뿐 만이 아니라 전공 수업에서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. 문화 콘텐츠 전공인 저는 이 곳에서도 전공을 계속 이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. 수업을 들으며 일본이라는 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야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.

일본에서 지내는 동안 학교 근처부터 다른 지역의 여행, 축제, 영화 등의 문화생활을 하며 더 일본의 문화와 언어에 가까워진 기분이 들어 기뻐했습니다.





설렘보다 두려움을 더 많이 안고 왔던
처음과는 다르게 행복한 추억과 아쉬움을 가득
안고 돌아갑니다. 혼자였으면 절대 이렇게까지
깊진 경험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. 마지막까지
함께 해준 유학생 친구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, 늘
언제나 다정하고 친절했던 튜터에게 다시 한번
감사드립니다. 너무나도 빨리 지나간, 제 인생의
가장 큰 도전이었던 오차대에서의 반학기를 통해
성장한 스스로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
행복합니다.